

아저씨의 훈장

그 거리엔 유난히 열쇠고리장수들이 많았다. 그밖에 손톱깎기장수 병따기장수 만능칼장수 등 지다란 쇠붙이들을 벌여놓은 잡상인들이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지 열쇠고리장수만이 내 눈에 자주 밟혔다.

“얼마요?”

나는 그중에도 제법 좌편이 큰 열쇠고리장수 앞에 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신문을 보고 있던 청년은 나를 훑듯 한번 쳐다보고는 이백 원 짜리도 있고 삼백 원 짜리도 있다고만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다시 신문을 보았다. 뜻밖에 매섭고 심각한 눈빛이었다. 청년이 열심히 보고 있는 건 어느 대학교수가 극일(祝日)을 주장하는 긴 논설이었다.

열쇠고리장수 청년이 항일투사의 후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침 전문이 없었다. 다행히 청년은 내가 주머니를 뒤지며 어쩔 줄을 모르는 데는 관심 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다. 허필 천 원 짜리도 없이 만 원 짜리뿐이었다.

아무리 활아 주고 싶어도 좌편에 있는 것을 모조리 살 만한 고액권을 내놓고 거스름돈을 달래기가 돈이 없다는 것보다 더 미안하게 여겨져서 나는 열없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청년이 또 한번 훑듯 쳐다봤다.

“저어, 왜 자물쇠장수는 없죠?”

미안해서 뭐가 한 마더 한다는 게 그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았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지랄치기 필요했던 건 아니다. 내 집에도 내 사무실에
도 필요할 때 잠글 수 있는 문은 수도 없이 많았다. 현관문을 비롯해
방문, 욕실문, 옷장서랍, 책상서랍, 문감문, 병장교문에까지 열쇠구멍이
있어서 필요할 때 열고 잠글 수 있었지만 따로 지랄치기 필요한 구닥다
리 문은 하나도 없었다.

빠리체과점은 그렇게 시골시골하면서 도 어떤지 시냇고 단 쇠잔해 가는
것 같은 거리 중간쯤에 있었다. 나는 약도를 다시 꺼내 보았다. 제과
점과 사격장 사이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 여인숙이 있는 삼거리에서 왼
쪽으로 꼬부라져 오른쪽으로 세계 집이었다. 제과점과 사격장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 사이로 난 골목은 좁았다. 그러나 골목이 있
는 이상 약도대로 찾아온 건 틀림이 없는 데도 나는 잘못 찾은 것처럼
찜찜하고 당황스러웠다.

노인네 문병이기 때문에 벨 좀 사야 하는 건데 빠리체과점에서 케익
을 사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 빈 손이었다. 빠리체과점 골목이라고 들
었을 때부터 세련되고 정결한 고급체과점을 연상할 게 잘못이었다. 시골
의 구멍가게도 샌프란시스코니, 베니스니, 모나코니 하는 이름으로 행
세하고 싶어 하는 풍속도 모른대서야 간첩으로 오인받아 쌀 만큼 도처
에 흔해 빠진 게 그런 상호였다. 그런데도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것은
중동 출장길에 빠리를 거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잠깐 거쳤지만, 어쩌면 잠깐 거쳤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었구나! 하는 찬탄과 선망이 아직도 가슴에 멍이 되
어 남아 있었다.

나는 우리가 부영계 호린 진열장 속에 원색적인 조화로 장식한 짜구
러 케익과 양회바닥이 고르지 못한 원칠한 내부를 일벌하고는 필요 이
상의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돈으로 드러이지, 돈이 나를 거야,
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너우네 아저씨가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고 근태엔 사람도 못 알아볼
만큼 병세가 악화됐다는 걸 알기는 성표형을 통해서였다.

십년 넘어 서로 소식이 끊겼던 성표형을 우연히 만난 건 며칠 전 거
레치 사무실에서였는데 몸이 많이 볼고 경기도 좋아 보였다.

“형님, 운동 좀 하셔야겠우.”

나는 수인사 끝에 할 말도 없고 해서 이렇게 그의 비만증을 건드렸었
다. “말도 말게, 짐사림하고 나하고 합치면 자그만치 이케키로가 넘는

다네. 게다가 막대팔년이 국민학교 오학년이 벌써 오십키로가 넘으니
오죽해야 차가 못 배겨나겠나. 자꾸만 뛰가 내려 앉아서 이번에 큰 마
음먹고 욕기통으로 바꾸었는데 전될라나 모르겠어.”

나는 속으로 무슨 회색든지 제 자랑, 제 자랑 중에도 재력자랑으로
물고 가는 성표형 버릇은 여전하구나 싶어 아니꼬운 생각이 들었지만
또 만날 사람도 아니겠다 적당히 상대해 주다 먼저 일어서면서 한번
찾아뵈겠다고 인사치레를 했다. 그때도 그는 요새 새로 이사했다는 아
파트를 가르쳐 주면서 그 아파트의 평수가 오십 평이 넘으며 평당 가격
이 얼마든 요새도 매일매일 치솟는다는 물지도 않는 얘기를 중언부언
했다.

“참 아저씨도 여전히 건강하시겠죠?”

나는 그의 돈 많은 척이 울려 들기 싫어서 증폭을 자를 겸 뒤늦게 너
우네 아저씨 안부를 물었다.

“응응? 삼촌 그 양반...”

성표형은 뛰가 쟁기는 것처럼 묘하게 고는 소리로 이렇게 더듬대고
나서 건강지 못할 뻔터려 얼마 못 사실 것 같단 얘기를 했다.

“형님도 그 애칠 어쩌면 이제야 하세요. 하마터면 돌아가시기 전에
못 빌 뻔했잖아요? 일간 꼭 찾아뵈겠어요.”

이러면서 수첩을 꺼내 전성으로 들은 그의 아파트 동호수를 적어 놓
으려고 했다. 그제야 그는 아저씨라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삼촌 만 살림 내드린 지가 벌써 언제부터라고. 자네 벨 그렇게 놀라
나셨다고는 하지만 그 어른이 모아 놓은 재산인데 그만하면 오래 모셨지. 살림
생활비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니 요즈음 세상에 삼촌한테 그만큼 하는
조카지식 없네, 없어.”

저음엔 좀 기가 죽은 듯하던 성표형이 점점 기고만장해지면서 언성을
높였다.

“그럼 혹시 그 동안에 아저씨가 새 장가라도?”

“새 장가?”

성표형이 큰 소리로 반문하면서 한바탕 웃어چه했다. 부자연스럽도록
호탕한 너털웃음에 커대한 배가 강진(強震)에 흔들리는 땅덩이처럼 경망
을 떨었다.

“새 장가는 아무나 드나? 돈이 있든지 사내구실을 제대로 하든지...”

그는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결렬대기 시작했다. 그가 그의 갑옷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만 사람도 아닌 내 앞에서. 나는 성포형하고도 너무네 아저씨라고도 존수가 닿는 친척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근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걸 그가 모르지 않으려만.

나는 성포형이 너무네 아저씨를 그렇게 잔혹하게 갈아뭇개는 게 나에게 대한 간접적인 모욕까지 겸하고 있는 것처럼 불쾌했다.

“그럼 지금 위중하신 양반이 혼자 사신단 얘기예요? 뭐예요?”

나는 불멘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 성포형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피동피동했다.

“질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네. 다니면서 수발을 들다가, 뒤도 못가리게 위중해지시고부터는 순제 풍치는 사람을 하나 따로 뒀지. 두면 될 하나, 풍치는 것도 전문지이라고 풍치고 빠는 것 외엔 생판 몰라라 하는 걸. 숨 넘어가는 김새도 몰라라 할까 봐 허투 걸터다도 안 들어다 볼 수가 없지. 시부모 없는 데로 시집 와서 마냥 편하다가 요새 된통 걸렸지. 그 분풀이가 다 어디로 가겠나. 허구헌날 바가지를 박박 끊어 썰는데, 그 눈치 보라봐 비위 맞추라 그것도 풍치는 수고 못지않다네.”

그가 풍 소리를 아찌나 걸쩍하고 실감나게 하는지 나는 코를 감싸주고 싶었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때 바깥 일을 핑계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물어본 너무네 아저씨의 현재 처치가 바로 P동의 빠리제과점과 사격장 사이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 여인숙이 있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꼬부라져 오른쪽으로 세계 집이었다.

나는 그가 일터준 대로 약도를 그리면서 그의 풍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분노와 혐오감이 차츰 너무네 아저씨가 그래도 인간적인 매접을 받고 있으려니 싶은 안도감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성포형의 태도가 그만큼 거칠없이 벗어난 때문이기도 했고, 내가 아는 P동이 예로부터 내뿜오는 도심의 품위 있는 주택가인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빠리제과점 골목이란 소리가 나로 하여금 밝고 편안한 거처를 연상하게 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착각이 쑥스러워, 애꿎은 빠리제과점한테 한껏 모멸의 시선을 던지고 나서 사격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사격장 안은 그 속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검검했고, 한길로 튀어나온 나무시렁 위에는 대여섯 자루의 권총이 음산한 무의명으로 나뭇그늘 아래 있었다. 나는 사내답지 못하게 총부리만 보면 가슴이 질렁 내려앉

는 버릇이 있었다.

집의 아틀너석이 한창 장난이 심할 때였다. 장난감총으로 내 가슴을 겨냥하고, 명망땅 총소리를 낼 적에 나는 죽는 시늉을 하면서 쓰러지는 대신 당장 아이한테서 총을 뺏어 집어던지고 나서 그런 못된 장난을 어디서 배웠는지 대라고 따귀를 때리면서 호령을 했었다. 그 일은 두고두고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나의 아미 자격을 트집잡는 좋은 꼬투리가 되곤 했었다.

나는 총구를 조심하며 사격장의 권총을 접어 보았다. 음산한 무쇠빛되는 말리 플라스트릭제였다. 가쁜한 권총 총구는 끈달린 코르크마개로 막혀 있었다. 그런 놀이를 본적이 생판 없는 것도 아닌 데도 나는 배신감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 문병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목적이 문병 외에 딱 지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너우네 아저씨는 어느 만큼 중태인 것일까. 뒤도 못가린다니 사람도 못 알아볼지도 모르지. 목숨만 붙어 있다면 의식은 이미 죽은 환자를 문병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티구나 생전에 한번 봐었다는 걸로가 책이나 비난을 면할 만큼 의리를 지켜야 할 사이도 아니었다. 중태란 소식 대신 무음을 들었데도 문상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이였다.

그러나 나는 되돌아서지 않았다. 나는 너무네 아저씨가 지금 처한 상황을 똑똑히 봐 두고 싶었다. 내가 보길 원하는 게 그분의 행복할 말로 인지 비참할 말로 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만약 그분이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성포형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성포형의 유들유들한 비만증까지도 치가 떨렸다. 그러나 그분의 임종의 자리가 정결하고 편안하고 유복해도 역시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바라는 건 뭐냐? 나는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를 자신에게 이렇게 따졌다. 그러나 확실한 건 너무네 아저씨가 어떻게 죽어가나를 보고싶다는 것뿐이었다.

P동은 내 기억 속의 품위 있는 동네와는 열토당토 않았다. 옛날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땅 속으로 반쯤 가라앉은 것처럼 쇠잔해 보였고, 아침마다 짜리터 지국이 정결하던 골목길엔 보도블록이 코르티 못하게 깔려 더럽고 울퉁불퉁했다. 집집마다 다투어 간살을 추녀끝까지 내밀어 집필을 추악하게 만들고, 가벽이나 좁은 골목을 더욱 좁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그런 누추한 골목길을 더듬어 여인숙이 있는 삼거리까지

오는 동안에 벌써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싸잡아 오죽장은 사람들로 알보고 있었다.

여인숙이 있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꼬부라져 오른쪽으로 세계 집역시 기둥이 삐딱하게 기울고, 대문 문지방이 길보다 낮아 침몰해 가는 폐선(廢船)처럼 보이는 고옥이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었다. 나는 앞집 때문 앞까지 몰려나 그 집의 폭 꺼진 용미루와 기와물 사이에서 자라는 풀을 바리바리고 나서 때문 틀음으로 안의 동정을 살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지만 간살은 넓어 보였고 가지각색의 쓰레기통이 여러 개 놓여 있고 하나같이 꾸역꾸역 넘치는 걸로 봐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큰기침을 하면서 대문을 밀었다. 문지방 연탄아궁이 앞에 죽그리고 앉아 뚫어넘는 빨래를 막대기로 뒤척이고 있던 여자가 훌긱 쳐다봤다. 열린 중문으로 꽤 넓은 안마당과 여러 가구의 세든 방들이 보였지만 나는 꼭 그 문지방에 너우네 아저씨가 누워 있을 것 같았다. 성포형환테 들은 풍 소리를 단박 연상할 만한 퀴퀴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빨래를 삶던 아주머니는 나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빨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러 가구가 사니까 드나드는 사람도 많은 데 익숙해져 있는 눈치였다.

“저, 말씀 좀 여쭙보겠는데요.”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말을 시키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 물어 봐요. 난 이 집에 눌러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 것도 몰라요.”

“너우네 아저씨가 여기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칼쎄, 난 이 방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 집 일은 알것도 모른다니까요. 들어가서 물어 봐요. 자그만치 여섯 가구나 사는 집이니 너우네 아저씨가 없으면 여우네 아저씨라도 안 있겠어요?”

아주머니는 농지거리까지 하면서도 쳐다보진 않았다. 나는 개의치 않고 그 아주머니한테 말을 시켰다.

“영감님이에요. 흥씨 성(姓) 가진. 노환으로 위증하시다고 듣고 문병을 왔는데요.”

비로소 여자가 부시시 일어섰다.

“흥씨 성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있는 건 이 집

에서 이 문지방밖에 없는데...”

“아주머니는 그 노인 시중을 들러 출근하시는 분이군요?”

“맞았어요. 근데 아들 손주도 들여다보지 않는 산송장을 문병 온 렷은 뒤시우?”

“한 고향 어른이에요. 진작 와 뵈었어야 하는 건데 몰랐어요. 며느님은 자주 들리나요?”

“들리면 될 해요. 굶겨 죽었던 소린 안 들을려고 먹을 거 떨어질 만 하면 들렀다간 노인은 들여다도 안 보고 가느질.”

“좀 빌 수 있겠습니까?”

“벌써 사람 못 알아보는 지 오태예요. 그래도 빌고 가는 게 도리지. 암 도리구 말구.”

아주머니가 황하니 삶은 빨래 대야를 마당 수도가에 갖다 놓고는 문지방 미닫이문을 열었다. 하마터면 계울 뻔하게 아릇한 냄새가 끼쳐왔다.

아주머니가 먼저 방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뒤편 보시는 족족 깨끗이 치워드리진만 유왕 때문에 그래요. 살 쎄는 냄새가 똥오줌 냄새보다 훨씬 더 고약하거든요.”

내가 도망치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주머니 때문이었다. 아주머니의 시선은 거의 매달리다시피 내가 문병을 완수하길 촉구하고 있었다. 나는 요령껏 호품을 절제하며 구두를 벗고 올라섰다. 방문은 내 키보다 낮고 방 속은 칙칙했다. 아주머니의 얼굴엔 울지, 울지, 부추기면서 어린애에게 쓴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의 그것과 같은 부드러운 강요와 아버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나도 마지못해 방 안에 들어서긴 했지만 낮은 반자를 머리에 인 채 뺨뺨이 서 있었다.

“자아, 문병을 왔으면 가까이서 봐야죠. 사람을 못 알아보신다고 했지만 말로 표현을 못해 그렇지 속으론 다 아실 거예요. 며느님이 밖에서만 왈가비질 떠들다 간 날은 영감님 얼굴에 섭섭하고 꽤 씁해 하시는 티가 완연한걸요. 말을 못해 그렇지 듣기도 다 들으실 테니 하교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요, 아여.”

아주머니가 등을 미는 바람에 나는 훌쩍 주저앉았다. 저게 너우네 아저씨일까? 나는 명칭하게 눈을 치뜨고 누워 있는 노인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어찌던 이분은 제가 찾는 너우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라고 의치면서 도망을 치고 싶을지도 몰랐다. 키는 작달막했

지만 다부진 몸매가 살이 내리고 뼈와 가죽만 남으니까 어린애만했다. 그의 부피는 겨우 요 위에 비닐을 깔고 덮은 다후다이불이 주름잡힐 만했다. 용으로 된 피자마의 목둘레가 맞지 않아 뼈만 남은 어깨까지 드러나 보이는 게 무렵했다. 나는 뭐라고 말하는 대신 이불로 그것을 가려 주려다 말고 목과 어깨 뼈 사이가 앙상하다 못해 너무 깊어 폐인 같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것처럼 마지못해 이분은 너무네 아저씨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을 빼 골격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려면 그 무참히 폐인 곳을 보자 나는 불현듯 앞뒤로 번쩍번쩍 빛나는 자물쇠를 주렁주렁 늘이고 다닐 때의 너무네 아저씨를 떠올렸다. 너무네 아저씨가 월남해서 처음 잡은 직업이 자물쇠장사였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자물쇠공장도 없을 때라 그의 상품도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었다. 특히 미군부대를 통해 흘러 나온 미제 자물쇠는 값도 비싸고 이윤도 많았다. 너무네 아저씨는 이번 중고옷자물쇠를 특수한 약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끈이 달린 조끼 비슷한 방수천에다 앞뒤로 빈틈없이 달아매고 장사를 나셨다.

나의 어린 눈에 그런 너무네 아저씨는 마치 가슴에 훈장을 하나 가득 달고 백만대군을 사열하러 나가는 장군처럼 위대해 보였다. 앞뒤로 옷쇠자물쇠가 금빛으로 반짝거리서만은 아니었다. 너무네 아저씨의 허물을 췌를 듯 기고만장한 몸짓과 어떤 궁지 때문이었다.

“내가 누구법에 이 요생을 하는데, 내 지식 뿌리치고 대신 데리고 나온 내 장조카, 우리 종씨문종의 종손, 성포놈 하나 공부 잘 시켜 성공하고, 손 퍼뜨리는 거 볼 욕심 하나야, 다른 거 없어. 시체 젊은이들은 내 마음 몰라 쥐도 지하에 계신 조상님네들은 다 아실 거구면.”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과연 자기 아들을 뿌리치고 장조카만을 데리고 월남한 게 그렇게 잘한 일일까? 하는 의문을 품는 것조차 그의 앞에선 나쁜 마음처럼 희스러웠다.

그가 하찮은 자물쇠 행상을 하면서도 무릎이 험악한 장군처럼 당당하게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도덕적인 만족감 내지는 도취감 때문이었다. 그는 그 도덕을 완수하기 위해 치뤘어야했던 그의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를 어찌다 내비치는 적은 있었지만, 그 도덕 자체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채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리라. 그의 당당함이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그의 장조카이자 종씨문종의 귀중한 종손인 성포형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뿌리쳐야만 했던 친아들 은포는 나하고 동갑내기였다. 은포는 종씨 문종의 씨족마을인 너무네에 살았고, 나는 너무네보다 개방적이고 마을도 큰 편인 범바위골에 살았었다. 우리 마을에서 작은 동성이란 하나 남으면 너무네여서 동갑내기끼리 놀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다. 은포는 나보다 힘이 좀 췌지만 나에게겐 형이 있어서 팽이도 깎아 주고 썰메나 연도 만들어 주는 게 큰 배이었다. 나는 배를 민고 그애를 약올렸고, 그애는 힘으로 나에게 양감음을 했다. 같이 읍내 국민학교에 들어 감으로써 우리는 싸움용 거의 안하고 출장 불어다니게 되었다. 주로 은포가 우리 집으로 나를 부르러 왔고 학교가 끝나면 우리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늦으면 저녁까지 먹고 잤다. 나보다도 형이 잘해 주는 데 은포가 더 골렸던 것 같다. 가끔 나는 형이 우리 들한테 똑같이 잘해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은포가 나보다 더 형에게 알랑거리는 것도 샘이 나서 심술을 부릴 적도 있었다.

“니도 형 있잖아? 그네 형한테 해 달래지 왜 남의 형만 못살게 구냐?”

이러면서 형이 깎아 준 팽이나 접어 준 먹지를 왁스스럽게 압수하면 은포는 기가 죽어서 성포형은 친형이 아니잖아, 사촌형이란 말야 하면서 변명을 했다.

그때도 성포형은 그를 날려버려야 과부가 된 할머니와 함께 작은집인 은포네하고 같이 살면서 삼촌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형이나 아우가 소생을 남기고 죽었을 때, 남은 형이나 아우가 조카자식을 친자 식처럼 돌보고 책임지는 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이라지만 너무네 아저씨는 그 정도가 좀 심했다. 입히는 거 먹이는 게 누가 보기에 도 총허가지게 키웠다. 이팜도 귀한 시절, 성포형의 밤그릇엔 이팜을 퍼 담고 은포 밤그릇엔 여름엔 시커먼 보리밭 겨울엔 셋노란 조밥인 걸 나도 몇 번이나 보았었다. 설빔도 성포형만 해 입혔고, 신발도 성포형은 운동화, 은포는 검정 고무신을 사 신겼다. 신발이나 설빔처럼 돈 드는 건 몰라도 부엌에서 밥 푸는 것 좁은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법한데 너무네 아저씨가 쥐고 있는 가도(家道)가 하도 엄해서 식구들은 그가 안 보는 데서도 감히 거역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았다. 동서끼리 아무리 의가 종다 해도 은포 어머니 마음이 편한 리 없었고, 청상과부가 되어 시동생한테 얹혀 사는 성포 어머니라고 속 편할 리가 없었다. 소풍 가는 날

이나 운동회날 같은 때, 큰어머니 몰래 준 돈이라곤 자랑하면서 은포가 굳것질 하는 것만 봐도 그 여자의 편치 않은 마음이 충분히 짐작됐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게 너무네 아저씨의 이런 편애를 너무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송해 마지않았다. 나 보기에 너무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일가 문중의 이런 칭송을 힘입어 너무네 아저씨는 그때부터 그렇게 당당했었다. 피난 내러와 자물쇠장수가 되기 전부터도 너무네 아저씨는 가슴에 훈장 단 것처럼 으스스하며 다녔고, 남의 후퇴자 식까지도 너무네 아저씨만 만났다 하면 일정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그는 자기 자식은 막 기르고 조카자식을 어르고 먹는 걸로 아무도 감히 용해(容解)할 수 없는 도덕적인 완벽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삼팔선이 가까운 우리 마을은 6·25때 제일 먼저 인민군이 들어왔고 패주할 때도 나중까지 머물러 있었다. 나의 어린 눈에 그들은 장난감총으로 장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도 죽였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가에 곧게 자란 미류나무에 사람들을 등어매 놓고 난사하는 걸 은포와 나는 곤란한 손을 맞잡고 구경했었다. 사람들은 죽어서도 굶지 못하고 고개만 뿔구었다. 그때의 피약별과, 무수한 은화(銀貨)를 베달아 놓은 첫처럼 피약별에 반짝이면 미류나무잎과, 죽음을 뿔든 음산한 총신은 오래도록 나의 기억에 악몽으로 남아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그때 일찌거니 취가로 피신했기에 망정이지 그들이 달아나고 나서 헤아려 보니 부역하지 않고 살아 남은 청장년은 한 명도 없대도 파연이 아니었다. 너무네 아저씨가 피난도 안 가고 부역도 안 하고 마을 속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인덕이었다. 남에게 후하게 베풀고 착한 일을 쌓아서 얻은 인덕이니까보다는 순전히 제 자식보다 조카자식을 더 위해 길렀다는 데서 얻은 인덕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마평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너무네 아저씨가 무사해서 은포가 그 억울한 신세를 못 면하게 된 게 은근히 속상했는지도 모른다.

그해, 겨울 나는 은포하고 놀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네에 열선도 못하게 식구들의 감시를 받았다. 너무네에 염병이 돈다는 거였다. 여자들이 싸울 적에 염병을 할 년, 또는 염병을 하다 맘도 못 낼 년, 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도깨비나 귀신처럼 가상적인 공포였을 뿐 그걸 정말 앓는 사람이 생긴 줄은 몰랐다. 만 집도 아닌 은포네서

그걸 앓는다고 했다. 처음엔 은포가 앓는다고 했고, 다음엔 성포가 앓는다고 했고, 할머니도 걸렸다고 한다.

읍내 미군부대에서 나와서 소독을 칠저히 했기 때문에 아저 집 밖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소독뿐 아니라 좋은 약도 지어 주는 모양이니 죽지는 앓을 거라고 어머니는 나를 위로했다. 그렇지만 약이 아무 리 좋아도 노인네가 살아나긴 힘들 걸, 하면서 혀를 찰는 걸로 봐서 그 병이 얼마나 교약한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른들은 또 너무네에서 부음(訃音)이 왔을 때 조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옛날엔 염병을 앓는 집은 몰살을 하게 마련이고, 아무도 시체를 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 썩는 내를 정 참을 수 없으면 마을사람들이 불을 질러 집과 함께 배운다는 끔찍스런 얘기들도 했다.

“쓸데 없는 소리, 지금이 옛날이야? 남의 나라 병정도 겁없이 드나들며 소독을 해 준다 약을 지어 준다 하는데 한마을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는 이렇게 못마땅해 하셨지만 혼자서 문병을 갈 용기는 없는 것 같았다.

“하기 만 집으로 옮지도 않고, 그 집에서도 연달아 앓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걸 보면 미세 소독, 미세 약이 좋은가 봐.”

사람들도 이 정도로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선뜻 은포네를 드나드는 사람 안 생겼다. 살아나긴 세 식구가 다 살아났는데 머리칼이 몽땅 빠지고, 다리살이 말라붙어 걷지도 못하고 영금영금 기어다니는 게 꼭 귀신 같더라는 소문도 들었다. 너무네에 사는 가까운 친척들끼리는 더러 드나드는 모양이었지만 우리 범바위골 사람들은 아저 너무네를 지나다니는 것도 두려워했다.

은포네 염병을 고쳐 놓은 미군부대가 슬그머니 읍내 학교를 비우고 어디론지 떠나 버렸다. 인민군도 끔찍한데 중공군까지 합세해서 다시 내리온다는 소문이 들었다. 염병의 소문보다 훨씬 불길한 소문이었다.

어느 교약스럽게 추운 날, 우리는 마을을 비우고 피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난리에 마을엔 스한 마리 남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고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가다 죽느니 집에 앉아서 죽겠다고 버티는 노인이 생기면 대개의 남자들은 노인네를 돌보라고 아내를 때어 놓고 떠났다. 자연히 젓먹이도 남게 되고, 마상 길에 나선 전 살아 남

은 청장년과 길을 걸을 만한 사내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식구가 너우네를 지날 때 나는 아버지 바지가령이를 붙들고 걸치턱대면서 은포네 집에 들렀다 가자고 졸랐다. 아버지는 가티부터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그때였다. 지계를 친 너우네 아저씨가 짐을 나시고 있었다. 지계에 친 건 피난 보따리가 아니라 성포형이었다. 솥뚜무마기를 입고 솥포타기를 뒤집어쓰고 눈만 내놓고 있어서 머리칼이 풍뎡 뼈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열살이 넘는 소년이 지계에 탄 걸로 봐서 염병의 예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성포만 데리고 가시게요?”

사람들이 물었다.

“아저씨 하나밖에 못 데리고 떠날 바엔 조카자식을 구해야죠. 안 그럴습니까?”

“여부가 있나요.”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전성으로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병석에 있는 노모를 혼자 놔두고 떠날 그가 아니었고, 아내와 형수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려니 못 걷는 두 아이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선택을 함에 있어 고뇌나 갈등이 조금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에게 맹렬한 격의를 느꼈다.

너우네 아저씨까지를 포함한 우리 일행이 동구 밖을 벗어나려고 할 때였다. 여자의 통곡소리가 들렸다. 은포 아버지, 은포 어머니, 통곡에 간간이 이런 소리가 섞이는 걸로 봐서 은포 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였다.

그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에 우리 일행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너우네 아저씨만은 지계를 지고 잘도 걸었다. 그후 나는 오래도록 그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잊지 못했다.

피난 내려와서도 한동안은 너우네 아저씨와 이웃해 살았다. 팔계도록 반짝반짝 닦은 크고 작은 자물쇠를 앞뒤로 주렁주렁 달고 장군처럼 거만하고 평당히게 장사를 나가는 너우네 아저씨의 권위는 완벽했다. 내 자식을 사지에 뿌리치고 조카자식을 구해내서 공부시킨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속으론 언제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 라는 엉클한 생각을 키우고 있었다.

휴전이 되었지만 우린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심팔 이남이었기 때

문에 꼭 돌아갈 수 있을 것을 믿었던 우리는 하필 우리 고향 쪽에서 남으로 처진 휴전선이 역물하고 원망스러웠다.

너우네 아저씨인들 그때 이별이 영이될 뉘 줄만 알았으면 살마 지계에 은포 대신 성포를 올려놓지는 않았으련만... 형과 나는 고향을 아주 잃은 비감 때문에 이렇게 너우네 아저씨의 처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너우네 아저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장조카를 구했노라고 으스했다. 장조카를 공부시킬 위대한 사명을 면 그의 행상이 조그만 점포로 발전할 무렵 우리도 생활이 좀 나아져서 만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나 자주 소식을 주고 받고, 만날 기회도 심심찮게 있었다.

일 년에 두 번 있는 동향인의 군민회도 우리 식구가 모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즐거운 모임이었지만 너우네 아저씨네도 꼭 숙질(淑慝)이 함께 참석했다. 또 실형면 끼리의 의미라는 것도 각별해서 고향명에선 서로 모르고 지냈던 사이끼리도 경조사를 서로 연락하고 적극 참석했다.

결혼식장 같은 데서 가끔 만나는 너우네 아저씨는 성포를 대동할 적도 있었고 혼자일 적도 있었다. 물론 앞뒤에 자물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왕년의 행상티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눈엔 언제나 그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제 자식을 모질게 뿌리치고 장조카를 데리고 나와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 다 했다는 걸로 자신을 빛내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자물쇠 행상일 적에 매일밤 그것을 뒤아 훈장처럼 빛냈듯이, 요새도 매일 밤 자신의 내력을 번쩍번쩍 빛나게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특이한 내력으로 어디서나 빛났다. 동향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나잇살이 나 먹은 이들은 그의 자랑을 끝까지 들어 주고 아낌없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는 걸로 자신의 도덕적인 결합까지 은폐하려 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은포 어머니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잊지 못하는 한 그의 위대성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 그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동향인의 결혼식도 잦았지만 장례식도 잦아졌다.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도 세태고체 현상이 나타나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이 점점 줄었다. 너우네 아저씨의 자랑을 들어 주고 칭송할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 자신

의 내력이 더 이상 자신을 빛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너무네 아저씨는 눈에 띄게 풀이 죽어갔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새라 젊은 사람들한테 그가 한 짓을 풍쳤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노인들의 반응과 판이했다. 우린 이미 너무네 아저씨가 신봉하던 케케묵은 도덕과 상관없는 세대였다. 그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웃음거리라면 너무네 아저씨는 더 큰 웃음거리였다. 좀더 생각이 깊은 젊은이라면 너무네 아저씨가 자기 처자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개해 머지않았고, 그를 솟체 정그러운 피물 취급을 하려 들었다.

그 무렵부터 성포형이 삼촌과 동행해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삼촌의 행색은 어딘지 지꾸만 초라해졌다. 성포형이 돈 잘 번다는 소문 때문에 그의 초라함은 더욱 눈에 띄었고 악의에 찬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돈 잘 버는 조카한테 자가용 좀 내달릴 것이지 왜 걸어오셨느냐는 등, 돈 잘 버는 조카 돈 삼촌치곤 너무 추비한테 돈 잘 버는 조카가 짜구려 양복을 헤드렸을 리는 없고, 할아버티가 그렇게 추비한 모양이니, 돈 잘 버는 조카한테 새 장구나 들려달래라는 등, 버르장머리없는 젊은 이들이 맛대놓고 놀려먹었다.

그러다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도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 발을 끊게 됐다. 아버지의 등쌀에 못이겨 동향인의 모임에 나갔다면 나의 고향은 이제 서울이었다. 내 자식의 고향이 서울이니까, 그 사이에 나도 중년으로 접어들어 아버지에 속하기보다는 자식들에 속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명칭하게 치쁜 아저씨의 눈에 내 눈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악을 썼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주머니가 옆에서 일러줬다.

“말은요?”

“말을 하면 사람을 알아보게요.”

아주머니는 말은 못해도 속으로 사람을 다 알아볼 거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반복했다.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내가 돌봐 드린 지가 석달이 넘는데 그전부터 그랬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수없이 걸렸더니깐....”

“가만히 좀 쳐서 보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데요.”

나는 노인이 입을 쭉긋대는 것 같아 이렇게 아주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말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깐요. 인기척이 나니까 먹을 걸 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뭔지, 저 지경이 되코도 먹는 거라면 어떻게 상성이예요. 사람 그림자만 얼선대도 입 먼저 내들르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정그럽기도 하고.”

“그런 줄 아시면 얼른 잡술 걸 좀 해다 드리세요.”

나는 벌떡 화를 냈다.

“아니, 이 양반이 누구한테 함부로 역정을 내고 그래요. 창자가 말라 죽지 않을 만큼은 드리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도 똥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입 내두르는 대로 퍼넣었다간 누구 통구멍이에 빠져죽는 꼴 볼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가 남비를 떨쳐냈다.

“아저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저씨요?”

나는 아저씨의 입이 피뭉게 쭉긋대는 게 암만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또 다시 이렇게 악을 썼다. 입만 아니라 명칭하던 논에도 초점과 빛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감정 표현도 힘에 겨운 듯 이불 밖으로 나온 앙상한 손이 꿈틀꿈틀 경련을 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먼진 죽남비를 갖고 들어와 노인의 쭉긋대는 입에 퍼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 그는 이를 악물면서 도리질을 했다.

“에그머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다 봐. 쿡기 끊으면 죽는다는데....”

아주머니가 경망스럽게 순갈을 내던지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확신을 얻고, 그의 경련치는 손을 잡고 애타게 외쳤다.

“아저씨, 너무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무네 아저씨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윽고 아저씨의 손에 힘이 쥐어지는 듯하니 입술림이 확실해졌다. 나는 그의 명칭하던 눈에 그윽한 환희가 어리는 걸 푹푹히 보았고 그의 입이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은포야, 아야, 은포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매신 조카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은포의 단짝이었던 나를 보면 은포도 어느 하늘 밑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지만할 텐데 하고 비감하는 눈치라도 보일 법한데 한 번도 그런 적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을 뿌리칠까 동시에 아들의 이름까지 잊어 버렸을 뿐더러 아예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사람 같았다.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난 나왔다고 자랑할 때의 아들도 보통명사로서의 아들이지 은포라는 고유명사로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에 올린 은포 소리는 나만 겨우 알아들을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내 귀엔 역경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사력을 다해 역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아, 감십여 년 전 은포어머니의 역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서야 앙갚음을 완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 왔을 터인데도 해감보다는 허망함에 소스라쳤다.

다시 열쇠코리장수가 들어선 거리로 나왔을 뻔 해가 누엿누엿했다. 해가 누엿누엿할 무렵이면 가슴에 하나 가득 갖가지 자물쇠를 늘인 채 봉지쌀과 지반교등어를 사들고 뒤뚱뒤뚱 걸어오던 너무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봉지쌀과 지반교등어 때문인지 자물쇠가 훈장으로 보이는 엉뚱한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외롭고 초라한 자물쇠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직시(直視)할 수 있기까지 자그만치 실존 두 해가 걸렸던 것이다.

(1983)

遺失

갈증 때문에 깨어났다. 휘둥대며 휘젓는 손끝에 쉽게 물주전자만 적혔다. 그 무게가 불 같은 갈증의 무게를 끌어줄 만큼 실한 게 우선인가왔다.

침이 엷처럼 끈끈하게 말라붙어 있어 물맛은 들착지근했다. 그런 화급하고도 불쾌한 새벽의 물맛은 실로 오래전만이였다. 단숨에 물주전자를 비우고 나서 갑자기 되살아난 새벽의 물맛 때문에 그는 짜늘하게 긴장했다. 그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긴경테씨가 중증의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은 것은 오년 전이였다. 갈증 말고 무력감도 심상치 않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선 줄에 들어서 있어 서 무력감쯤은 그럭저럭 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새벽에도 그 물진이 있을는지 않더라는 서글픈 히소연쯤은 같은 연배의 친구들 사이에선 보통이었다. 한 마디로 서글픈 나이였다.

그렇다고 순전히 갈증 때문에 병원에 간 건 아니었다. 그는 전강에 자신이 있었고, 그것은 그 나이까지 병원 신세진 일 없고, 어쩌다 걸터는 감기에도 약 안 쓰고 버틴다는 걸로 과시하고 으스스해질 좋아했으니까.

침이 이웃인 친구가 운전을 배우려 다니더니 새로 차를 사서 이른 새벽이면 교외로 몰고 가서 한 바퀴씩 돌고 왔다. 운전이 어지간히 자신이 생기고부터는 긴경테씨한테도 같이 가지고 놀라웠다. 새벽의 스카이웨이, 새벽의 강변로, 새벽의 수유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 나이에 운전 배우는 친구를 명 재촉한다고 마뚝잖아하면 그도 어느